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와 소장 학자들의 삶 기획하기*

조극훈**

【요약문】 이 글은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 기획하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장 학자들의 삶과 학문을 기획하고 실현할 수 있는 학문 풍토와 사회 여건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 신규박사 고용 여건 변화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인문계열 상용직 취업비율은 2011년도 56.6%에서 2014년 49.0%로 감소되었으며, 연봉 4천만원이상 비율도 52.7%에서 31.2%로 감소되었다. 그만큼 인문학 박사의 연구자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고용여건의 악화상황에서 소장 학자들이 살아갈 사회의 여건과 준비사항을 인문학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먼저 자본주의 사회와 소장 학자의 삶을 분석하였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3포세대가 등장할 정도로 불안한 청년들의 상황을 제시하면서 그 원인을 빈곤, 교육, 불평등 문제 등으로 분석하였다. 노력과 성취에 대한 신뢰를 나타내는 사회이동성 지수가 청년층일수록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정의와 학자의 사명에서는 학자적 삶의 양식을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으로 분석하고 전문직으로서의 학자의 사명과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도전의식이 중요함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소장 학자의 삶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와 분배 정의 실현이라는 사회여건과 함께 원전독해 능력과 진리에 대한 믿음과 같은 개인적 조건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인문학 협동조합의 결성과 같은 결사체의 필요성과 함께 노숙인 인문학, 교정 인문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신생 인문학 분야 개척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소장 학자, 3포세대, 사회 계층 이동성, 분배 정의, 인문학의 블루오션.

* 이 논문은 2015년도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춘계학술대회(2015. 5. 14)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 기획하기>에서 발표된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와 소장학자들의 삶 기획하기」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 경기대학교

1. 서 론

한국 사회에서 소장 학자들¹⁾이 연구의 사명과 목적을 실천하고 자신의 삶을 기획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의 방향과 목적에 공감하고 지지할만한 사회적 자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연구 문화와 지원 체계도 충분하지 않다. 특히 성과 위주의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 그리고 지원체제로 소장 학자들이 긴 안목에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지 않았다는 점은 심각하게 고민할 문제로 보인다. 이는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있는 가벼운 연구 풍토를 조장하고 논쟁을 일으키고 오래 남을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 풍토를 피하게 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소장 학자들이라면 누구나 소망하는 대학 취업은 노력보다는 우연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논문 편수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요소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학벌과 연구력 이외의 운이 없다면 소장 학자들이 대학에 취업하기란 쉽지 않다. 대학에 취업하지 못한 연구자들은 두 가지 길이 기다리고 있다. 연구를 포기하거나 힘들지만 학문에 대한 열정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연구자의 길을 가는 것이다. 후자의 길은 다양하다. 각종 연구소나 연구재단의 지원 학회활동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연구를 지속하는 경우다.

그러나 이 길도 그렇게 녹록한 것은 아니다. 우선 경제적인 문제가 뒤따른다. 강사로나 연구비는 고정되고 안정된 경제력이 아니다. 단기 계약과 단기적인 지원으로 인해 불안한 생활을 할 수 밖에 없다. 초심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다. 젊은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계획과 연구 역량을 발휘하여 살아가기 위한 경제적인 요소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처럼 불평등, 빈곤,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고 사회 계층 이동성이 취약한 사회에서는 청년들이 학문의 길을 선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경제적 빈곤 때문에 소장 학자들의 자존감 상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자존감은 자신이 세운 인생 계획이 실현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음을 타인이나 사회에서 인정을 받으며, 그러한 인생 계획을 실현할 만한 충분

1) 이 글에서 소장 학자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학문 연구를 하는 학자들 중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을 얻지 못한 예비 교수 등을 말한다. 대학 강사, 정부기관 및 기업체의 연구소의 연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 능력이 있음을 인정받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인생 계획의 실현 가치와 인생 계획의 실현 능력은 사회적 관점보다는 개인적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으로 치부하는 것이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학문은 연구자 자신이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도 결국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문에 대한 자유주의적 접근 때문에 소장 학자들의 학문과 연구에 대한 자존감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경쟁과 성과의 논리는 소장 학자들의 미래를 더욱 암담하게 만든다.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성과를 내면 인생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는 시각은 우리 사회에 깊게 드리운 불평등의 문제를 간과할 뿐만 아니라 출발선과 인생경력 환경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형식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래의 삶의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학문의 길을 가겠다는 청년들의 선택은 자신들의 인생계획을 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믿음이 강할수록 학자의 길을 가겠다는 청년들도 미래계획에 대한 확신을 더욱 강하게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보면 소장 학자들이 자신의 인생계획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음을 각종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다. 그만큼 청년들의 미래 생활의 계획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고용불안과 저임금은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사회를 기획할 때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면 국내박사 중 인문학 박사의 상용직 비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연봉 4천만원이상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인문학 박사로서 연구자 생활이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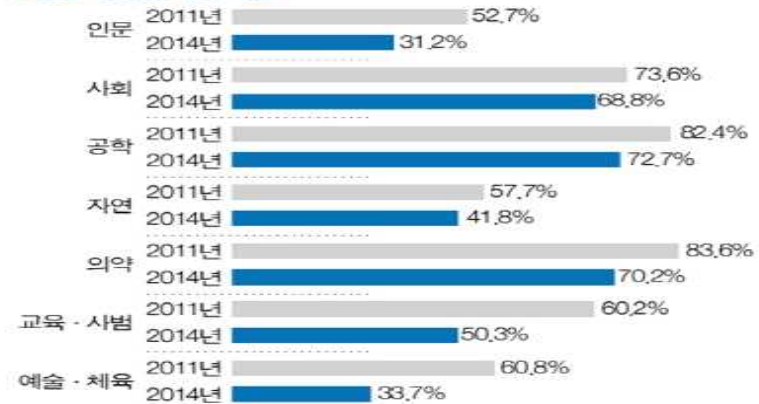
표1 <국내박사의 고용 여건 변화>2)

국내 신규박사의 고용 여건 어떻게 변했나?

■ 상용직 취업 비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인문	56.6%	54.5%	51.0%	49.0%
사회	64.0%	64.1%	65.1%	67.6%
공학	85.8%	85.6%	81.6%	79.4%
자연	71.3%	73.0%	69.1%	69.4%
의약	66.5%	63.2%	64.4%	69.0%
교육·사범	80.2%	81.9%	74.3%	82.2%
예술·체육	66.7%	58.1%	58.5%	60.2%
전체	71.6%	70.1%	68.6%	68.9%

■ 연봉 4천만원 이상 비율



※위 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율임.
 ※자료: 박사조사(2011~2014년)(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료를 교수신문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1~2014년 신규박사 분석 결과는 고용불안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으며, ‘인문학 박사’ 5명 중 2명은 연봉 2천만원 미만일 정도로(연봉 2천만원 미만 18.3%(2011년)에서 39.8%(2014년)로) 경제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국내 대학의 신규 박사인력에 대한 실태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해마다 국내 대학원에서 새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과 노동시장 이행 성과 등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인문계열 상용직 취업 비율이 56.6%(2011년)에서 49.0%(2014년)이 떨어졌으며, 연봉 4천만원 이상 비율도 52.7%(2011년)에서 31.2%(2014)

2) 『교수신문』 2015년 4월 2일자에서 재인용.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26>)

로 낮아졌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인문계열 박사들이 상용직 비율이나 연봉의 측면에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사학위를 취득해도 취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불안한 현실에서 밝은 미래를 기대하기란 어렵다. 불안한 고용시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의 문제점 등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 대안은 제도적인 차원과 비제도적인 차원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좀더 안정된 재정지원을 통한 인문학자 지원제도의 정착과 함께 인문학 협동조합 활동, 소규모 학문 공동체등과 같이 소장 연구자들의 삶의 기획을 현실화하기 위한 대안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 글은 소장 학자들의 삶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구조와 여건을 알아보고 가능한 대안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성과와 경쟁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고 소장 학자의 삶이 어떻게 구조화되는지를 살펴본다. 학문의 시장화 프레임에서 연구 활동을 한다는 것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적을 생산하는 일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사회풍토를 지적한다. 특히 이러한 연구 풍토에서 소장 학자의 삶이란 논문과 저술의 양적 생산을 위한 것으로 설계된다는 점을 주목한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인 빈곤, 교육, 불평등을 소장 학자의 삶과 관련지어 논의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 강남에서 용이 나는 시대’에 소장 학자들의 지향해야 할 삶의 기획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한다.

3장에서는 소장 학자들이 갖춰야 할 학문관 및 소명의식을 논의한다. 그 방법으로 고대 그리스의 바람직한 삶의 양상, 피히테와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의 학문관, 그리고 막스 베버의 학문관 등을 제시한다. 관조적 삶과 활동적 삶,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성적 인식, 그리고 전문성, 열정, 책임감 등의 학문의 요건을 검토한다. 소장 학자들의 학문과 삶의 기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학문과 인생계획에 대한 확신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소장 학자의 연구 기획 또는 삶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바람직한 사회구조와 여건을 살펴본다. 소장 학자는 경제적인 불안과 신분의 불안 때문에 자신들의 인생계획이나 연구계획이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데서 학문적인 좌절과 인생계획의 수정을 경험한다. 공정한 사회 구조와 공정한 절차가 보장된 질서정연한 사회가 소장 학자의 삶의 기획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필수요소라는 전제에서 대안을 모색한다. 롤즈의 공정으로서의 정의를 방법으로 사용하여 정의로운 사회구조 만들기과 인문학 협동조합과 같은 학문 공동체 운동을 사례로 소장 학자들이 현실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과 공간을 모색한다. 이를 근거로 좋은 사회에서 좋은 인생 계획이 실현될 수 있듯이, 소장 연구자들의 인생 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좋은 사회구조를 전망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연구해왔던 필자의 학문적인 모험을 사례로 제시하면서 새로운 분야의 개척과 도전의식의 필요성을 논의한다.

2. 자본주의 사회와 소장 학자의 삶

누구에게나 평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일이 처리되고 행운이 아니라 노력만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사회일수록 사회적 생산성이 높고 행복한 사회이다. 소장 학자의 삶과 인생 계획의 성공 여부도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노력의 성취에 대한 확신에 의해 좌우된다. 부와 교육의 대물림에 의해 계층간 이동성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노력보다는 운에 의해 성공이 좌우된다면,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이 커지므로 인생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성과와 경쟁 그리고 효율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학자의 길이란 제한될 수밖에 없다. 학문의 시장화 프레임에서 연구 활동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업적을 생산하는 일을 연구의 목적의 주안점으로 두게 된다. 특히 이러한 연구 풍토에서 소장 학자의 삶의 방향도 논문과 저술의 양적 생산을 위한 것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점인 빈곤, 교육, 불평등을 소장 학자의 삶과 관련지어 논의하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는 시대가 아니라 강남에서 용이 나는 시대’에 소장 학

자들의 처한 현실을 파악하고 지향해야 할 삶의 기획과 실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장 학자의 삶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처한 상황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소장 학자도 이러한 청년층에서 나오는 것이며 이들이 처한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 배경과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문제의식도 이러한 청년층의 사회 상황과 뿔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삼포 세대라는 말은 오늘날 청년들이 처한 현실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물론 모든 청년들이 다 그런 세대는 아니지만 삼포 세대란 말은 시대의 한 국면을 표현하는 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다는 ‘삼포세대’는 이제 대인관계와 내 집 마련까지 포기해야 하는 ‘오포세대’가 됐다.³⁾ 최근에는 오포세대를 넘어 꿈과 희망까지 포기한 ‘칠포세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의 청년층의 좌절과 무기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용어가 되었다. 스펙이 좋아도 취업이 되지 않는 사회,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사회에서 청년들이 택할 수 있는 길이란 매우 한정될 수밖에 없다. 연애, 결혼, 출산, 대인관계, 내 집 마련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까지도 포기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청년들을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결국 절망하게 만드는가?

이러한 사회적 상황은 소장 학자들의 삶을 쉽게 나약하게 만들고 인생계획을 수정하도록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삼포세대의 등장 배경에는 불공정한 사회 여건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경제계에 주목을 받고 있는 프랑스 파리 경제대 피케티 교수는 『21세기 자본』에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문제를 빈곤, 교육, 불평등으로 요약하고, 자본주의에 내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의 근본 원인은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항상 높다는 데 있다.⁴⁾ 피케티 교수의 불평등 원인 분석은 소장 학자의 삶을 분석하는 데에도 유용

3) <세계일보> 2015년 5월 6일자 참조.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6/20150506004233.html?OutUrl=daum>).

4) 피케티에 의하면, 자본이 스스로 증식해 얻는 소득(임대료, 배당, 이자, 이윤, 부동산이나 금융상품에서 얻는 소득 등)이 노동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임금, 보너스 등)을 웃돌기 때문에 소득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진다. 토마 피케티,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파주, 20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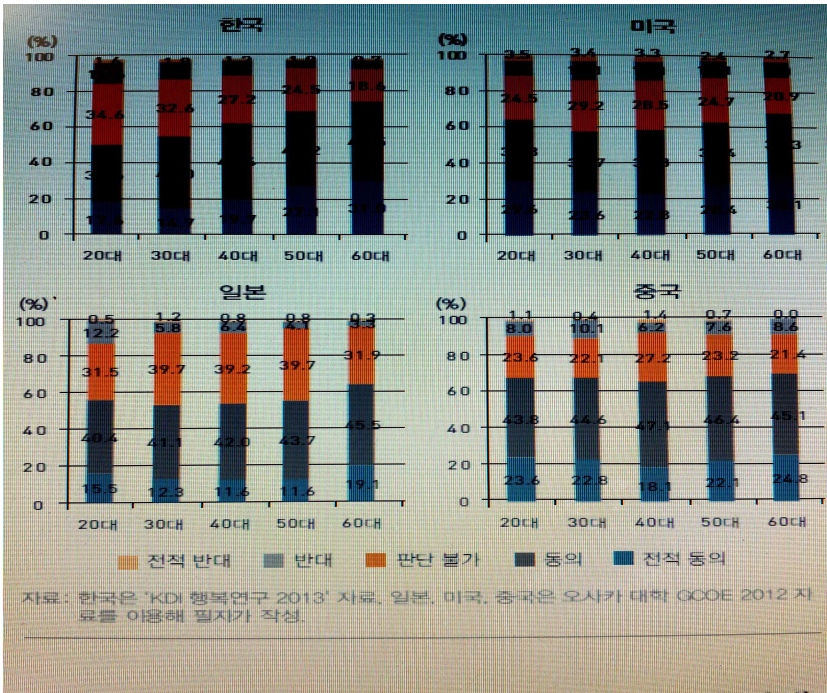
하다. 임대료, 배당, 이자, 부동산 투자에 의한 자본 소득이 노동 소득보다 높은 데서 불평등이 원인이 있다는 분석은 노동이나 노력의 성취에 대한 믿음을 약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열심히 일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약화가 오폭 세대를 낳고, 소장 연구자의 인생 계획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오늘날 청년 세대가 ‘노동 없는 자본주의’가 가져 온 ‘풍요속의 빈곤’과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모순 속에서 ‘청년실업’과 ‘청년상실’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⁵⁾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한국의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하기 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의 결과는 우수한 학문적인 재능이 빈곤이나 교육, 불평등으로 인해 사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장 학자의 삶의 방향과 인생 설계의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기에서는 사회이동성(social mobility) 조사 보고서를 참고로 소장 학자가 처한 현실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줄이나 운이 아니라 노력에 의해서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가 청년들의 미래 삶의 기획에도 영향을 미친다. 표3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은 외국에 비해 젊은 세대일수록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공의 요소로서 노력에 대한 믿음의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찬성 및 전적 찬성) 비율이 60대에서 75.5%인 데 비해 20대에서는 51.2%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은 일본, 미국, 중국 등에 비해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강한 편이었지만, 젊은 층일수록 회의적인 시각이 다른 나라보다 강하게 나타났다. 노력의 성과에 대한 불신은 청년들의 미래 삶에 대한 설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학자로서의 삶을 자신의 인생 계획으로 세우고자 하는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으로 인해 자신의 인생 계획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더라도 학자로서의 정상적인 연구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는 능력 있는 소장 학자의 재능을 사장함으로써 사회적 국가적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다.

5) 강대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 6쪽 참조.

표2 <성공을 위한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의 연령대별 비교>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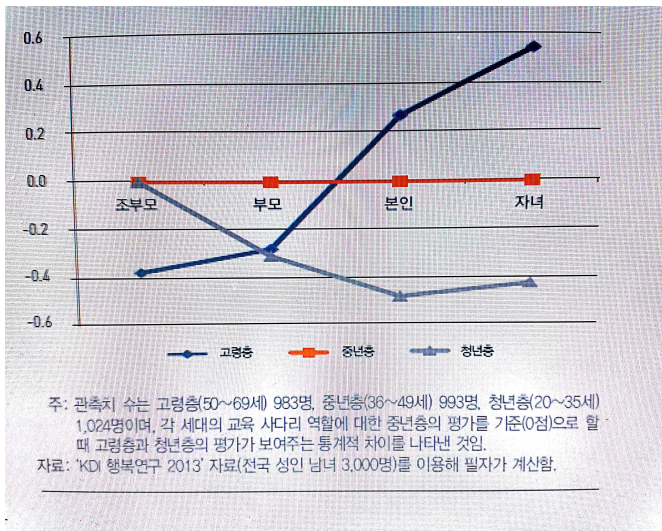


또한 서울지역 고1학생의 학교 유형별 가구소득 분포 조사 결과에 의하면7), 소득의 불균등이 교육의 차이로 이어져 교육의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모의 월 소득이 500만원이 넘는 학생 비중이 특목고에서는 50.4%로 절반을 넘는데 반하여, 자율고(41.9%) 일반고(19.2%) 특성화고(4.8%)로 급격히 줄어드는 반면, 월 소득 200만원 이하 소득 가정의 비중은 그 반대라는 통계 자료가 교육 불평등의 대물림의 근거가 된다. 상대적으로 특목고 학생 출신이 대학 입학 기회뿐만 아니라 좋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곧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6)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제54호, 2015, 3쪽.
 7)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제54호, 2015, 3쪽 참조.

한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표3은 교육에 의한 사회 이동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청년층은 중노년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을 보여준다. 고령층은 각 시대에서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해 본인의 조부모와 부모 세대에 대해서는 더 낮은 평가를, 본인과 자녀 세대에 대해서는 더 높은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은 부모, 본인, 자녀 세대에 대하여 교육의 사다리 역할에 대해 보다 회의적인 생각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계층 상향 이동 가능성과 노력에 대한 믿음의 약화의 결과로 빈곤, 불평등, 교육의 문제가 그 원인임을 알 수 있다. 교육의 기회가 보편화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되면서 빈곤층 아이들에게도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될 수 있지만, 통계 자료가 보여주는 것처럼 좋은 학교에 가려면 부모의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보다는 계층 대물림의 통로로 인식될 수 있다.⁸⁾

표3 <각 세대에서 교육의 계층 이동 사다리 역할에 대한 연령대별 견해>⁹⁾



- 8)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제54호, 2015, 5쪽 참조.
9)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제54호, 2015, 5쪽.

오포세대, 경쟁, 빈곤, 교육, 불평등, 사회이동성 개념 등이 소장 학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빈곤이나 기회의 불평등으로 인해 소장 학자의 인생 계획이 수정될 수 있다.

둘째, 경쟁과 성과주의 문화는 연구의 양적인 축적만을 장려한 나머지 연구의 질적인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낼 수 있다.

셋째, 노력의 성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소장 학자들의 계층 이동이 어렵다.

넷째, 부와 교육의 대물림 현상은 소장 학자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 지적 능력을 낭비하는 사회적 비효율성을 낼 수 있다.

3. 사회정의와 학자의 사명

사회이동성의 가능성과 노력의 성과에 대한 믿음의 약화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현상에도 불구하고 소장 학자들은 학자로서 학문에 대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한다. 소장 학자는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쌓기 위해 시간적인 노력과 경제적인 비용을 들인 전문가이면서 진리 탐구라는 학문 본연의 의식을 갖춘 윤리적 존재이며 아울러 진리에 대한 존경과 믿음이 없으면 자신의 업을 계속하기가 힘든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실 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이라는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학자의 의무는 그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 학문적인 의무를 갖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사회정의의 관점에서 학자로서의 갖추어야 할 소장 학자의 사명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논의한다. 사회정의란 부의 불평등이나 빈곤 및 교육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예측이 가능한 사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회 규범을 말한다. 그 방법으로 고대 그리스의 바람직한 삶의 양상, 피히테와 헤겔과 같은 철학자들의 학문관, 그리고 막스 베버의 학문관 등을 활용한다. 관조적 삶과 활동적 삶, 존재의 근원에 대한 이성적 인식, 그리고 전문성, 열정, 책임감 등의 학문의 요건을 검토한다. 소장 학자의 사명과 삶의 기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명에 대한 충분한 인식

과 함께 정의로운 사회 여건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자 한다.

1)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

전통적으로 학자들의 삶은 활동적 삶(*vita activa*)과 관조적 삶(*vita contemplativa*)으로 나뉜다. 활동적 삶은 정치참여나 사회봉사와 같은 현실 참여형 학자들의 삶의 방식을 지칭하고, 관조적 삶은 상아탑에서 진리탐구에 매진하는 이론지향적 학자들의 삶의 방식을 지칭한다.¹⁰⁾ 삶의 방식의 차이는 학자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관한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진리의 실천이 학문의 목적이고, 후자는 진리 자체의 인식이 학문의 사명이다.

오늘날 연구자들의 스타일도 다양하다. 사회단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현실참여형, 전공 관련 학회의 임원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주도형, 교육부나 지자체의 프로젝트에 몰두하는 프로젝트형, 그리고 논문과 저술 활동을 통해 진리 자체 연구에 몰입하는 연구실형 등이 있다. 넓은 의미로 전자의 패턴은 활동적 삶으로, 후자의 패턴은 관조적 삶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문의 길로 들어선 소장 학자들은 학문과 생활 사이에서 갈등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우선 소득이 변변치 못한 연구자들은 생활과 학문 사이의 딜레마에서 고민하게 된다. 학문에 몰입하게 되면 생활이 안되고, 생활에 중심을 두면 학문에 소홀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신입 연구자들이 통과해야 할 일차적인 관문이라 할 수 있는데, 전자의 삶의 방식을 택한 연구자들은 배우자나 주변인의 도움을 받으며 미래에 다가올 희망을 위해 현실을 인내하면서 살아간다. 여기에 연구재단의 각종 프로젝

10) *vita activa*는 정치가들이나 정치에 참여하는 학자들의 삶과 사회적 봉사를 주요 과제로 하는 수도자들이나 종교인들의 삶을 지칭했던데 반하여, *vita contemplativa*는 진리탐구에 매진하는 학자들의 사변적 삶과 사막이나 수도원 등에서 은거하면서 금욕과 명상 등 수행적 삶을 사는 수도자의 삶을 의미했다. (전광식, 『*Vita Activa*와 *Vita contemplativa* : 삶의 유형에 대한 개념사적 논의』,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제56집, 2011.) 여기에서는 활동적 삶과 관조적 삶의 범위를 넓혀 소장 학자들의 다양한 삶의 패턴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트는 생활에 도움을 주지만, 프로젝트가 연구의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한다.

2) 존재에 대한 이성적 인식과 인식의 체계화

소장 학자는 학문의 목적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흔들리지 않고 학자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다. 탈근대 담론에 의해 주체 중심적인 이성주의적 진리관이 타자 중심적 진리관으로 대체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여전히 이성 담론은 유효하다. 존재에 대한 합리적 인식과 인식의 체계화라는 학문 방법론은 학문의 화두로 삼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독일 근대 철학자인 피히테는 "학문의 본질은 진리와 자유이고, 자유는 인간의 본질이다. 따라서 인문학의 위기는 인간성의 위기이며, 인간 자유의 훼손이다."¹¹⁾고 하면서, "비이성적인 모든 것을 자신에게 종속시키고 고유의 법칙에 따라 비이성적인 모든 것을 자유롭게 지배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궁극적 최종 목적입니다."¹²⁾고 하였다. 이성적인 인간이 비이성적인 것을 해방하는 것을 학문의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피히테의 학문관은 이성중심의 학문관이라 할 수 있다.

존재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파악하고 체계적인 인식을 강조한 헤겔의 학문관은 전형적인 계몽적 이성의 학문관이라 할 수 있다.¹³⁾ 그는 자신의 주저인 『정신현상학』을 의식이 가장 단순한 형태인 감각적 확신에서 출발하여 지각, 오성, 이성, 정신, 종교를 거쳐 절대지에 이르는 의식의 경험의 학이라고 부를 정도였다. 의식의 긴 경험의 여정 그리고 절대지라는 완전지에 대한 확신이 그의 학문의 정체성을 이루고 있다. 이성지와 체계

11) J. G. 피히테, 서정혁 옮김,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책세상, 서울, 2002, 11쪽.

12) J. G. 피히테, 서정혁 옮김,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책세상, 서울, 2002, 32쪽.

13) 헤겔은 청년들이 학문을 하기에 좋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청년은 아직까지 궁핍한 제한된 목적의 조직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사심없이 학문적인 일에 종사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시기이기 때문"이며 "또한 청년은 자만이라는 부정적 정신에도 아직 얽매이지 않고, 단지 비판만 하려는 악착같은 노력이 지닌 몰내용성에도 사로잡히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다."(G. W. F. 헤겔, 서정혁 옮김, 『교수 취임 연설문』, 책세상, 서울, 2004. 27쪽.)

지라는 이성적 학문관은 소장 학자들이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삶의 현실에서 이성적인 것을 찾고 거기에 도달하려는 노력이 사회적 개인의 소명이다.¹⁴⁾

3) 전문직으로서의 학자의 사명

오늘날 학문 풍토는 융합형 통섭형 학문과 학자를 선호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는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한 충분한 공부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한다. 어설픈 융합은 다른 학문 영역을 모아 놓는 물리적 융합에 그치기 쉽고 융합에 의해 새로운 영역을 창출하는 화학적 융합에 이르지 못한다. 오히려 자신의 학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연구 가치와 밀도가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원전 독해 능력 및 글쓰기 능력 습득이 선행되어야 한다. 어학 능력과 함께 논문 쓰기 방식을 넘어선 다양한 글쓰기 방식의 개발이 요구된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학문』¹⁵⁾ 등 몇 권의 책에서 정치인의 사명감과 전문직으로서의 학자가 갖추어야 할 사명을 얘기했다. 열정, 책임, 객관성은 정치가가 갖추어야 할 사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소장 연구자들의 학문적 사명으로도 참고할 만한 가치라고 생각된다. 자신의 전문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열정, 대의에 대한 헌신이라는 책임의식, 그리고 해석과 분석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성은 학자의 기본자세이다. 학문이 실험실이나 통계실의 계산문제처럼 된 현실에서 학자는 가시적 업적이나 명예와 같은 학문 외적인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는 학문 그 자체만을 추구하는 전문화를 통해서만 학문의 내적 소명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특히 합리화와 관료화로 인해 “영혼없는 전문가”로 흐르기 쉬운 학자의 문제점에 대한 베버의 지적은 업적형 연구자와 프로젝트형 연구자를 양산하는 우리 학문풍토에서 음미해야 할 부분이다.

14) 윤병태, 「학자의 사명과 학문의 태도」, 『헤겔연구』, 한국헤겔학회, 제28권, 2010, 573쪽 참조.

15) 막스 베버, 전성우 옮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 서울, 2006.

4)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한 관심과 도전 의식

소장 학자들은 시대의 변화를 의식하고 새로운 학문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만일 그 분야가 자신의 학문적인 적성이나 흥미에 적합하다면 의외로 많은 학문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이론적 관심만이 아니라 사회역사 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동반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최근의 인문학 열풍에 대한 관심을 들 수 있다. 이는 교정인문학, 노숙인 인문학처럼 문학, 역사, 철학 등 인문학의 분야를 새롭게 개척함으로써 인문학의 블루오션을 창출하는 계기가 된다. 이에 대한 사항은 4장에서 재론하기로 한다.

4. 소장 학자의 삶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 여건

소장 학자의 학문의 길이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 여건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불평등한 사회에서는 정의가 실현될 수 없으므로 소장 학자의 삶과 인생 계획도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는 소장 학자의 삶의 기획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보다는 이미 알려져 있고 시도된 대안을 재검토하는 수준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1) 정의로운 사회의 여건

소장 학자들이 원하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는 정의로운 사회 여건 마련을 들 수 있다. 그러한 사회 여건으로 공정한 절차와 합의에 의한 사회 제도의 운영, 자유와 평등의 원칙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 불평등이 있더라도 그 불평등이 최소수혜자에게 합당한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분배의 원칙, 정의감, 자존감 등 사회의 기본 가치의 존립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사회의 발전은 경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려와 협력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가치관의 전환 등도 중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롤즈는 한정된 재화를 공정하게 분배하는 분배적 정의에 주목하고 무

지의 배일과 원초적 상황에 대한 전제를 통해서 누구나 합의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의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의 할당에서는 평등의 원칙이 요구되지만,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그것이 최소수혜자에게 그 불평등을 보상할만한 이득을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¹⁶⁾ 질서 정연한 사회(well ordered society)는 예측이 가능하고 안정된 사회이므로 누구나 자신의 인생계획을 실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사회다. 그리고 그러한 안정된 사회에서는 공정한 절차에 근거한 합리적 도덕 판단 능력인 정의감(sense of justice)이 강하게 발휘될 수 있으므로 사회가 부정의에 빠질 수 있는 경향이 억제될 수 있다.¹⁷⁾

특히 이러한 정의의 원칙은 “사회의 기본 구조가 갖는 분배적 측면의 정의 여부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부정의한 현행 사회제도를 개조하고, 사회 변화의 지침이 될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¹⁸⁾,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마련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롤즈의 분배적 정의는 개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체제를 떠나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각국의 전통적 제도, 사회적 세력, 특수한 역사적 배경” 등과 같은 콘텍스트가 고려되지 않으면 안된다.¹⁹⁾

정의로운 사회는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다. 그러한 사회는 사람이 바뀌거나 사회적 급변이 있어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회 구성원들은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에 의존하므로 사적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누구나 노력의 성취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질 수 있

16) J.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서울, 2013, 69쪽.

17)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과 정의감에 대한 롤즈의 논증에 대해서는 『정의론』 제8장 정의감을 참조. 롤즈는 정의의 조건들을 다섯가지로 열거하고 정의의 원칙은 이 조건들의 충족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 ①진술에 사용되는 술어가 일반적 성질을 표현해야 한다는 “일반성”, ② 그 원칙들은 모든 이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보편성”, ③ 정의의 결과가 합의에 의한 경우라면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리라는 “공지성”, ④ 대립적인 요구를 조정할 수 있는 상충하는 요구들의 “서열”을 정해주는 것, ⑤ 원칙들의 체계가 실생활의 판단에 있어서 최종적이어야 한다는 “최종성”이라는 조건이다.(J. 롤즈,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서울, 2013, 188~194쪽 참조; 또한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과 현실사, 서울, 2013, 322쪽 참조.)

18)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과 현실사, 서울, 2013, 323쪽.

19) 위의 책, 324쪽.

다. 소장 학자의 삶이 불안한 것은 노력의 성취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정의사회에서는 소장 학자들은 자신의 인생계획이 충분히 가치가 있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확신과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

2)인문학 협동조합의 결성과 학문의 자율성

인문학 협동조합은 삶과 삶 그리고 노동의 만남을 통해서 자율적인 학문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하여 창립되었다. 2013년도에 결성된 인문학협동조합의 특징은 협동조합의 상부상조의 정신을 구현하고 경쟁과 성과주의 풍토에 고착된 연구문화를 극복하고 실험하는 데 있다. 조합원수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학문공동체로서 협동조합이 창립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소장 학자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 자본의 힘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학문을 논할 수 있다는 점, 상호부조를 통한 안정성 확보와 울타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인문학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원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다양한 자체 수익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재정 자립도가 높은 기존의 생협형태의 조합들과 연대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인문학협동조합은 학문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의 성격상 생활공동체의 성격이 강하므로 재정 마련 여부가 관건이다. 연구 프로젝트, 번역, 출판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재정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협동조합 창립 선언문>20)

인문학협동조합 창립 선언문

인문학은 삶과 삶, 노동을 만나게 하는 힘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만나고 대화하는 실천들이야말로 인문학의 본질입니다. 더불어 행복해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모색하려는 생활인이라면 누구든 인문학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의 인문학은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고 자본의 확대만 꾀하는 체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비판해온 그간의 논담에서 빠져리게 확인한 것은 실천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 인문학협동조합은 공부와 삶의 불일치를 협동적 활동으로써 극복하고, 시민들과 인문학의 공유를 통해 서로의 삶에 보탬이 되게 하고, 인문학자와 인문학 공간들의 네트워크가 되고 싶습니다. 다음을 바탕으로 그렇게 하려 합니다.

첫째, 인문학 본연의 상상력과 태도입니다. 우리는 인문학협동조합을 통해 경쟁과 성과주의에 고착된 연구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고 극복하는 방법을 실험하고 실천할 것입니다. 인문학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이가 함께 하는 장이 되어 현재의 대학과 학술장에 결핍돼 있는 것을 비취낼 수 있는 거울이 되고, 기성의 장들이 더 나은 삶과 삶을 생산하게끔 자극하겠습니다.

둘째, 노동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연구 노동자들의 일도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새롭고 유력한 도구가 협동조합이라 생각합니다. 인문학협동조합을 통해 기존의 제도로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일의 방식과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또한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을 창출·기획하고 대학의 연구 노동의 실태를 개선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인문학협동조합은 젊은 인문학 연구자들의 각성과 결의로부터 출발했습니다만, 앞으로 삶과 삶, 노동의 행복한 공생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서로 다른 분야의 연구자 및 협동조합들과 창조적 협업을 구하고, 곳곳의 지식공동체와 크고 작은 인문학 모임이 활발히 교통할 수 있는 공통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한 지식생태계의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과 계층의 삶의 격차를 줄일 방법을 찾는 일에도 노력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원동력에는 조합원의 상호 신뢰와 협동이 절대적입니다. 이는 인문학을 향한 열정만으로 쌓아가기 어렵습니다. 서로 돕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마음의 자세를 인문학협동조합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어렵고도 중요한 인문학적 실천입니다. 연대와 만남, 합리적 경제 활동과 상호부조의 힘으로 인문학협동조합은 나날이 흥미진진해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진실로 가능하게끔 함께 대화하고 협동해나갑시다.

2013년 8월 31일, 인문학협동조합 조합원 일동

3) 노숙인 인문학, 교정 인문학,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실험

다음으로 새로운 학문 분야의 개척을 들 수 있다. 필자가 지난 5년동안 실험했던 인문학의 경험을 통해서 청년 학자들의 삶과 인생계획이 실현되기 위한 바람직한 사회의 조건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라는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문적인 도전은 세 가지 영역에 대한 연구와 실천으로 이루어졌다. 노숙인 인문학, 교정 인문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필자에게는 지금까지 연구 활동에서 할 수 없었던 학문적인 경험과 현장 경험의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협동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더구나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는 현장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절실한 깨달음을 주기도 하였다. 노숙인이나 재소자 또는 소년원생,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문학은 대상의 특성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들에게 필요한 인문학은 자신들의 삶의 위기를 받아들이고 이를 극복하여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문학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텍스트의 이해뿐만 아니라 콘텍스트의 이해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1) 노숙인 인문학²¹⁾

노숙인 인문학은 수원시 노숙인 25명을 대상으로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노숙인다시서기센터, 경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가 함께 진행한 자존감 회복을 통한 노숙인 자활의지 실현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올해로 3회차를 맞이한 이 프로젝트는 도와 시에서는 재정적 지원을, 센터에서는 노숙인 모집을, 그리고 인문학 연구소에서는 인문학 교육을 담당함으로써 전형적인 민관학의 협업체계를 보여준다. 더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철학, 문학, 역사, 글쓰기, 고전 등 인문학 전반을 종합하고 있다는 점에서

21) 노숙인 관련 필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극훈, 「노숙인 자존감 회복을 위한 성경신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민인문학』,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제27권 1호, 2014. 이 프로그램은 2013년도부터 시작하여 올해로 3년차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가 재정지원을, 수원시 노숙인 다시서기 센터가 인원 모집 및 관리를, 그리고 경기대학교 인문학 연구소가 교육을 담당하였다.

노숙인 인문학은 인문학의 통합적 성격을 보여준다.

노숙인 인문학이나 교정 인문학 등은 희망의 인문학에서 유래되었다. 얼 쇼리스는 재소자 대상 강의를 통해서 재소자의 교화와 원만한 사회복귀를 위해서는 정신적인 삶의 가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클레멘트 코스라는 인문학 커리큘럼을 만들어 시행하였다. 희망의 인문학은 소외 계층 스스로의 삶의 자각, 왜 자신이 이러한 존재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위해서 인간의 자유와 정치적 인식의 중요성 등을 강조한다.²²⁾

노숙인 인문학을 통해서 필자는 ①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접근의 필요성, ② 빈곤 문제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관심과 연구 동기 부여, ③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인문학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 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점은 전공분야를 확장하고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며 동시에 학문의 사회 공헌의 계기가 되기도 한다.

(2) 교정 인문학²³⁾

교정 인문학은 교정학이나 범죄학과 같은 사회과학에 철학과 같은 인문학을 접목하여 수형자, 소년원생, 교정시설 직원에 대한 인문학 교육 실시 및 프로젝트 진행으로 이루어졌다. (사) 아시아교정포럼의 인문교정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독서모임을 통해서 교정학과 범죄학 관련 독서와 토론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정학이나 범죄학 전공 연구자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인문학이 재소자들의 가치관과 삶을 변화시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같은 사회복지 프로그램만 진행할 때보다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은 인문학과 상담, 치유 프로그램이 진행할 때 사회복지가 훨씬

22) 얼 쇼리스, 고병헌 외 옮김,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서울, 2010.

23) 교정인문학 관련 필자의 연구 성과는 다음과 같다.

조극훈, 「인문교정의 학적 체계 정립 연구」, 『교정담론』, 아시아교정포럼, 제8권 2호, 2014.

조극훈, 「사회갈등과 범죄에 대한 철학적 고찰」, 『교정담론』, 아시아교정포럼, 제7권, 2013.

조극훈, 「교정행정에서의 전자기술 사용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교정담론』, 아시아교정포럼, 제6권, 2013.

조극훈, 「헤겔의 형벌론과 회복적 사법」, 『인문학 연구』,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제7권, 2013.

더 성공적이었으며 재범률로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교정 인문학은 한국연구재단을 비롯한 법무부 등 관련기관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다.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서 연구자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삶의 계기가 되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이다. 이론 수립과 적용 및 수정을 통해서 검증된 프로그램을 출판하는 것도 또 하나의 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자신의 전공 이외의 연구자들과 교류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교정 인문학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①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융합의 필요성 인식, ② 새로운 분야 학문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할 필요성, ③ 인간의 본성과 죄와 벌에 대한 고민, ④ 교정학과 범죄학 공부와 연구의 시발점 등이다. 무엇보다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알게 되었다는 도전과 모험 정신이 교정 인문학 연구 성과이다.

(3)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²⁴⁾

인성교육 프로젝트는 철학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서 일반 시민, 청소년, 소외계층 등에게 직접 시연함으로써 품성과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국내에서도 수많은 인성교육 관련 연구서와 프로그램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많지 않았다는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더구나 이 분야는 우리 사회의 불안과 힐링 문화의 확산 풍토에서 발전 가능성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기도 했다. 철학적 깊이와 체계가 가미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가 더 필요한데 필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배울 수 있었다.

(1) 철학의 근본 문제 중의 하나인 인성의 문제를 활동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볼 수 있는 기회, (2) 인문, 인성, 상담의 통합적 사고의 중요성 제고, (3) 도덕 심리학, 교육학, 상담학 분야의 관심 유발 등이다.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현장에 얼마나 잘 적용하고 효율성을 높이는가가 관건이다.

24) 인성교육 프로그램 관련 필자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극훈, 「헤겔의 인륜성의 관점에서 본 동학의 인성론(人性論)」, 『동학학보』, 동학학회, 제34호, 2015.

조극훈, 「동학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론」, 『동학학보』, 동학학회, 제31호, 2014.

5. 결 론

소장 학자들이 처한 현실 사회는 연구 계획을 충분히 실현하고 성취하기에는 녹록치 않다. 빈곤, 교육, 불평등이 계층 이동을 어렵게 만들었고 오폭 세대라 불리는 신조어는 청년층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었다. 누구나 노력만 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낮다는 것은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국내박사의 최근 4년간의 취업과 급여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들은 소장 학자들의 삶의 기획을 더욱 절망스럽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연구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과 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소장 학자들이 처한 경제적인 여건은 피계티의 지적처럼 평등하지 못하고, 교육, 빈곤, 경제적 불평등 때문에 계층 이동성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 KDI의 교육 관련 사회이동성 연구보고서는 이러한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청년층일수록 노력의 성취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었다는 것은 소장 학자들의 삶의 계획도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소명과 철학이 있어야 한다. 학자의 삶의 양식은 실천적 방식과 관조적 방식이 있으며 이에 속한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성지와 체계지라는 학문의 목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열정, 책임감, 객관성과 같은 학자로서의 사명의식도 필요하다. 공정한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 결정 기준의 마련, 질서정연한 사회의 개념과 정의감 등으로 정의로운 사회 여건 마련, 인문학 협동조합과 같은 학문공동체 설립의 필요성, 그리고 노숙인 인문학, 교정인문학, 인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같은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의식 등은 소장 학자들의 연구 기획이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다.

소장 학자들의 삶과 학문이 좌절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제도적인 지원 제도의 정착 및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문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강하더라도 경제적 여건과 문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소장 학자들은 쉽게 좌절하기 때문이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신진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연구 지원제도가 마련되어 있지만 그 기간이 짧을 뿐만 아니라 생활을 보장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연구 지원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간 강사 제도의 보완을 통한

소장 학자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확보도 중요하다. 강사 제도의 보완 논의가 있었으나 논의에 그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교육부와 대학에서 재정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강사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대학에서 전임 교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전임과 비전임의 구조를 탈피하여 양자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교육과 연구 및 봉사 활동을 통해서 전임과 비전임의 상호 이동의 수월성을 높인다면 연구와 교육의 질적 수준의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분의 불안함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소장 학자들에게는 전임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많이 확보하여 학문의 기획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전임의 측면에서도 연구와 교육의 동기부여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도 마련과 함께 인문학 협동조합과 같은 학문공동체를 통한 불합리한 사회 여건이나 학문 풍토에 대한 개선 활동도 필요하다. 강사노조를 포함하여 산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산별 연구공동체를 통합하여 통합적인 학문공동체를 설립해야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아울러 지역 사회와 연동된 인문학 콘텐츠 개발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앞서 든 세 분야의 인문학은 하나의 사례에 지나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가능하다.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개척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인문학적 기반 마련에도 일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살아갈 사회에서는 소통과 배려의 정신이 살아나고 기본과 질서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과 세상을 성찰할 수 있는 인문학적 사유가 필요하다. 월터 카우프만의 인문학에 대한 성찰은 오늘 주제에 대해서도 훌륭한 교훈을 준다. ① 인문학은 인류의 위대한 작품들(인류의 역사와 업적)을 보존하고 양육한다. ② 인문학은 삶의 목표, 실존의 이유, 인간의 궁극목적을 다루며 끊임없이 대안을 고민하게 한다. ③ 인문학은 비전을 가르칠 수 있다. ④ 인문학은 비판정신을 길러준다.²⁵⁾

www.kci.go.kr

25) 월터 카우프만, 이은정 옮김, 『인문학의 미래』, 동녘, 파주, 2011.

참고문헌

- 롤즈, J.,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서울, 2013.
- 베버, M., 전성우 옮김,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 서울, 2006.
- 쇼리스, E., 고병헌 외 옮김, 『희망의 인문학』, 이매진, 서울, 2010.
- 피케티, T., 장경덕 옮김, 『21세기 자본』, 글항아리, 파주, 2015.
- 피히테, J. G., 서정혁 옮김, 『학자의 사명에 관한 몇 차례의 강의』, 책세상, 서울, 2002.
- 황경식, 『사회정의의 철학적 기초』, 철학과현실, 서울, 2013.
- 헤겔, G. W. F., 서정혁 옮김, 『교수 취임 연설문』, 책세상, 서울, 2004.
- 강대근, 「한국사회에서 청년으로 살아가기」, 『제6차 유네스코 청년포럼: 청년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사회적 대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2009.
- 김희삼, 「사회 이동성 복원을 위한 교육정책의 방향」, 『KDI 포커스』, 한국개발연구원, 제54호, 2015.
- 윤병태, 「학자의 사명과 학문의 태도」, 『헤겔연구』, 한국헤겔학회, 제28권, 2010.
- 전광식, 「Vita Activa와 Vita contemplativa : 삶의 유형에 대한 개념사적 논의」,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제56집, 2011.
- 『2015년도 경기도와 함께 하는 통합인문교양교육 계획서』(미출간 보고서), 2015.
- 『교수신문』 2015년 4월 2일자.(<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0726>)
- 인문학협동조합 공식 블로그(<http://humanecoop.blog.me/>).
- 『세계일보』 2015년 5월 6일자.(<http://www.segye.com/content/html/2015/05/06/20150506004233.html?OutUrl=daum>).

Abstracts

Planning for the Future Society that the Youth Will Face and the Lives of Young Scholars

Cho, Geuk-Hun

This study is a part of the project entitled “Planning for the Society that the Youth will Face” and aims to take into account learning environments and social conditions in which young scholars’ lives and scholarship are adequately realized and enhanced.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changes in employment conditions in South Korea for the newly graduated doctors, the percentage of fully-employed humanities workers decreased from 56.6% in 2011 to 49.0% in 2014, and the percentage of those who earn more than 40 million won also decreased from 52.7% to 31.2%. This fact alone is enough to show that the lives of those who have doctorate degrees in the humanities are becoming more difficult.

To discuss the conditions and the preparation for the type of society that young scholars will face in line with the worsening situation of employment, especially focusing on the humanities, this study analyzes a capitalist society and the lives of young scholars in that society. In that regard, the current state of the youth was examined, and was found to be unstable to such an extent that a new term “the Sampo Generation” has been coined referring to a new generation in South Korea that has given up courtship, marriage and childbirth. The cause of this situation is clarified in terms of poverty, education and inequality. It is found that social mobility, which indicates the reliability of endeavors and accomplishments, is significantly lower for the younger generation. With regard to social justice and the mission of scholars, an analysis is made by means of dividing their lifestyles into active and contemplative forms

of life. The present study also strongl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the mission of scholars as professionals, their interests and a sense of challenge in a new academic field.

Lastly, for the realization of planning the lives of young scholars, some personal factors, such as reading skills on authentic texts and belief in truth, are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social factors, including fair procedure and the realization of distributive justice. Furthermore this study suggests the needs for the development of a new field in the humanities, such as humanities for the homeless, correctional humanities, and a character education program, as well as an organization of associations of humanities workers, such as a humanities cooperative association.

【Keywords】 Young Scholars, Sampo Generation, Social Mobility, Distributive Justice, Blue Ocean in the Humanities Scholars, the Lifestyles of Scholars